

COVID-19와 백패킹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30대 진지한 여가참여자를 중심으로

연분홍¹ · 김종순² · 오세숙³

¹승실대학교 강사 · ²경기대학교 연구교수 · ³경기대학교 교수

An Exploratory Study on backpacking experience and COVID-19:

Focused on serious leisure participants in their 20s and 30s

Yeon, Boonhong¹ · Kim, Jongsoon² · Oh, Saesook³

¹Soongsil University · ^{2,3}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serious backpacking participation has faced a new leisure culture amid COVID-19. A survey by way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carried out targeting 7 backpackers aged between 20s and 30s, and phenomenological analysis was employed. The result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 serious backpackers experienced both an empathy and discomfort on the changes of backpacking during COVID-19. Second, novice backpackers who began backpacking in the wake of COVID-19 did not have required packing, basic physical strength and safety technique which should be optimized hard skills, in other words technological competence and skill level. It was found that serious backpackers were proud of their hard skills in general. Third, the backpacking culture of serious leisure participants could be summarized as their thoughtfulness including the LNT(Leave No Trace) movement for nature and consumption for the local community for instance. In the final analysis, serious backpackers experienced the gap between an illusion and reality of backpacking due to COVID-19, and they attempted to prove themselves as a serious backpacker with their backpacking hard skills and manner. It could be asser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preliminary data of changed outdoor recreation experience caused by COVID-19. It is also expected that they could be utilized as a useful evidence to conjecture about the post-coronavirus leisure environment.

Key words : COVID-19, backpacking, outdoor recreation, LNT(Leave No Trace) movement

주요어 : 코로나19, 백패킹,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LNT(흔적남기지 않기)운동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ongsoon

E-mail: sdivertido@hanmail.net

Received: August, 07, 2021 Revised: September, 06, 2021 Accepted: September, 17, 202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전 세계는 COVID-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람과 접촉하는 방식, 소비 패턴, 여가활동 패턴 및 사회참여 방식 등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로 ‘팬데믹(pandemic)’ 즉, 전염병 세계 대유행을 선포했다. 세계 각국이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중지, 여행금지,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의 억제책을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는 필연적으로 여가활동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김형중, 2020).

특히 COVID-19 확산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내 근거리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등산, 캠핑과 같은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이 새로운 여가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변홍준, 김남조, 2020). 서울관광재단의 포스트 코로나19 관광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서울관광재단, 2021. 4. 5), 최근 여행, 관광, 여가와 관련된 언급은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산책, 캠핑, 등산, 자전거 여행에 대한 언급은 급증했다고 보고되었다. COVID-19로 많은 사람들이 여가활동 장소로 실내가 아닌 실외 또는 자연 환경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다.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캠핑, 등산, 백패킹 등의 언택트 활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실내 활동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대영, 이수진, 2020).

실제로 COVID-19 이후 아웃도어 여가활동의 소비와 관심이 증대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홍일영(2013)의 연구에 따

르면,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힐링 여가활동으로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야외활동은 삶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가활동으로 이를 통해 여가욕구를 담아 낼 수 있는 복합 여가활동으로 보았다(김형중, 2017). 특히 COVID-19 이후 실내 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비대면 관광지 중 야외 시설인 캠핑장이 주목 받고 있으며 백패킹과 같은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변홍준, 김남조, 2020).

최근 캠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재 다양한 형태의 캠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미니멀 캠핑이라 불리는 백패킹(backpacking)이다(김경식, 한승백, 한승진, 이연주, 2019). 백패킹의 사전적 정의는 야영 장비를 갖추고 1박 이상의 여행을 떠나는 레포츠로 등짐을 지고 간다는 데에서 유래한 명칭이며, 영국에서는 하이킹(hiking), 독일에서는 반데룽(Wanderung)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최성욱, 2013). 백패킹은 등산과 트레킹의 묘미가 복합된 레저 스포츠로 굳이 산의 정상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문명의 도움 없이 자신의 두 발과 의지만으로 대자연을 찾아 나서는 행위로 근대적 의미의 도보여행이라 할 수 있다(최성욱, 2013).

즉, 백패킹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시작됐다. 백패킹 자체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이 사람이 자급자족을 위해 필요한 음식, 옷, 장비 등을 짐으로 메고 거주지에서 떨어진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머무는 것이었다. 이후 여가적으로 백패킹은 도시를 벗어나 자연 환경과 조우하며,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도전의식과 자유감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다(Jenkins & Pigram, 2003).

캠핑과 같은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2011년 60만 명에서 현재 약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함선옥, 김혜지, 김학준, 2018). 또한 김경식 등(2019)은 미디어 중심의 캠핑 확산으로 현재 다양한 형태의 캠핑 트렌드 중 백패킹을 즐기는 인구가 최근 10년 사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본인의 캠핑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캠핑에 대한 경험, 관심수준, 전문지식 등을 갖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성향을 지닌 백패킹 마니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김경주, 서광봉, 이철원, 2015). 이는 백패커(Backpacker)들이 점차 전문화 되면서 캠핑방식의 다양화, 고급화, 캠핑 액티비티의 활성화 등을 추구하는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김현정, 박근수, 201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의 긍정적인 측면을 토대로 COVID-19가 모든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백패킹에 참여하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이 과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참가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백패킹 참여자들은 일회성 혹은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닌 진지한 여가참여자로써 캠핑 및 백패킹과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장비 등에 몰입도가 상당 수준에 도달한 이른바 전문화 집단이다. 이들은 단순히 여가활동의 즐거움을 넘어 백패킹을 위해 소비되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기꺼이 지불하여 전문가 수준의 실력과 지식을 갖춘 이른바 마니아 층으로 이들의 여가를 ‘진지한 여가’라고 칭한다(손수곤, 김인형, 2015).

Stebbins(1997)에 의하면, 진지한 여가는 여가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투자와 시간을 통해 지속적인 여가참여를 계획하고 노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

다. 또한 진지한 여가의 6가지 속성 중 전문성, 동일시, 인내, 노력, 개인적 보상 및 고유감정은 일상적 여가와 프로젝트형 여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동우, 정소정, 2015, 재인용). 그간 진지한 여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형성하기 위한 역할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 향상 및 긍정적 사고방식 등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은수, 한혜지, 황선환, 김태환, 2021, 김민규, 2015).

현재까지 국내 여가트렌드로 떠오르는 캠핑 관련 연구로는 주로 오토캠핑, 차박 등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참여동기 관련 연구(김하얀, 이동환, 김동한, 2016; 최연화, 정찬인, 이승곤, 2014), 이용만족도 및 효과에 관한 연구(김연정, 이천희, 이병찬, 2015; 김진옥, 김남조, 2013)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회성 참여자들 대상이므로 전문화 집단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캠퍼들이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어떠한 심리적인 경험을 하고, 무엇이 그들을 진지한 백패킹 여가활동에 돈, 시간, 노력 등을 소비 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COVID-19 상황의 장기화는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수요를 높였으며, 백패킹의 참여인구가 늘었다. 이에 기존의 참여 동기를 바탕으로 한 수요조사나 이용만족 이외에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들이 어떠한 정서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가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백패킹 참여자 간 이해와 경험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 남녀 백패커다. 백패킹에 참여한 기간은 2년에서부터 5년까지 다양하며, 한 달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진지한 여가로서 백패킹을 즐기고 있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백패킹 장소 선정과 장비를 다루는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스스로 성숙한 백패커라고 생각한다. 성숙한 백패커들은 미성숙하거나 초보 백패커에 비해 아웃도어 환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반드시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언제 백패킹을 떠날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며, 백패킹 용품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집에 백패킹 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창고가 있는 참여자가 있으며,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고 두 달 만에 다시 백패킹을 다닐 정도의 열정을 언급하기도 했다(〈표 1〉 참조).

이러한 본 연구참여자들은 전문성, 노력, 인내, 동일시, 고유 감정, 개인적 보상 등 진지한 여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표집은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였다. 최초 연구참여자 2명은 연구자의 지인이며, 이후 5명을 순차적으로 소개받았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참여자	나이	성별	기간	빈도
A	36	남	2년	월 2회
B	28	남	3년	월 2회
C	29	남	3년	월 2회
D	31	남	5년	월 3-4회
E	29	여	5년	월 3-4회
F	33	남	4년	월 2회
G	36	남	3년	월 4회

2.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었다. 당시 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기준 2단계와 2.5단계를 번갈아가며 조정되던 시기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개방형 설문지, 심층면담 그리고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우선 COVID-19와 백패킹 참여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면담은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백패킹을 시작한 동기, 백패킹의 매력, 백패킹 참여의 특성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백패킹에 COVID-19가 참여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ZOOM과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었으며, 연구참여자가 편한 시간에 회당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였고, 2-3회에 걸쳐 수행되었다. 대면 심층면담과 달리 라포 형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개방형 질문지의 제출 내용을 이용한 전화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개방형 질문지의 답변 내용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관찰은 백패킹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모습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체험의 의미에 대하여 가감 없이 그대로 기술하였으며, 참여자가 경험한 것에 대한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여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이철원, 2014). 백패킹 참여자들의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 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핵심내용의 형태를 기술하였으며, 2차적으로 유사한 의미가 있다면 압축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 탐색을 통해 범주화를 실시했다.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모든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했다. 연구자는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읽기를 반복했다. 연구주제인 현상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미단위들을 구별하고 중첩되지 않는 의미단위들을 확인해나갔다.

구체적으로 COVID-19와 백패킹 경험에 관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추출했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말한 표현들을 일반적인 이론적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로 바꿀 수 있는지 숙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상징적인 의미단위들의 하위범주와 상위범주화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는 연구자가 특정 절차를 사용하여 결과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Creswell, 2014; 정종진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 심층면담, 참여관찰 등 다양한 자료출처의 삼각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출처의 공통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범주화를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연구참여자 점검을 거쳤다. 모든 연구 분석과정에 여가스포츠 전공 교수 2명, 스포츠 전공 박사 3명을 통해 동료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었으며, 면담 녹음과 전사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됨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삼각검증법, 연구참여 구성원 검토, 동료 간 협의 등을 거쳐 자료분석 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에 따라 면담 내용이나 해석과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되는 과정이다(권민정, 2019).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가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첫째, 진지한 백패커들은 초보 백패커에 대한 공감과 불편감을 동시에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백패킹의 하드스킬에 대한 자부심이 도출되었는데, 하드스킬에는 최적화된 패킹, 기초체력, 안전의 역량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위한 LNT(Leave No Trace: 이하 LNT)운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소비로 표현되는 진지한 참여자들만의 배려심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1. 공감과 불편감의 공존

1) 초보 백패커에 대한 공감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백패킹을 하시는 유튜브이거나 아니면 좋은 카메라로 좋은 화질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잖아요. 그거를 피드로 올려서 자랑도 하고... 캠핑을 하거나 백패킹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접하고... 와! 여기 너무 좋겠다 하죠. (H)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좋은 모습만 보고 환상에 빠져서 시작하죠. 요즘 TV를 틀면 캠핑이 다 뭐다 하면은 같이 몰려다니면서 먹고 화로대에 불명도 하고 바비큐파티도 하고 이런걸 보여주니까... 너무 하고 싶어들 하죠. (A)

(초보 백패커들이) 쓰레기 처리만 잘 한다면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D)

(참여연구가 늘어난다는 것이)코로나로 타인과 접촉이 불편한 시점에서 충분히 꺼려지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충분히 자연을 즐길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요. (G)

연구참여자들은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포장된 백패킹의 이미지에 대해 언급했다. 초보 백패커들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대한 기대감과 불명 같은 캠핑의 낭만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러한 점이 실제로 백패킹을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초보 백패커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면서도 자연환경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2) 마구잡이식 백패커에 대한 불편감

유명 비박지의 경우 귀마개가 필수품일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매너타임이 밤 12시에서 10시로 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아요. (A)

요즘엔 각자만의 캠핑스타일이 있겠지만 향을 피운다던지, 너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던지, 사람이 많아졌다던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불편하게 느껴져 아쉬워요. (E)

TV를 통해 캠핑은 불명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마구잡이식 캠퍼들이 늘어나고 있죠. (G)

백패킹이란 것이 계절적 영향도 크고, 화장실이나 씻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몇 번 경험만 하고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요. (B)

아마 (백패킹의 인기)트렌드가 바뀌기 전 (소음과 오염 때문에)폐쇄되는 박지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경우가 더 클 것 같아요. (A)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초보 백패커들에 대해 불편감을 나타냈다. 특히 마구잡이식이라는 표현처럼 잘못된 행동을 하는 백패커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들을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백패커들은 백패킹의 인기가 축소되고 초보 참여자의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하기도 했다.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들의 부정적 정서경험들은 초보 참여자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 활동 수준 별 참여자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결과라 판단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참여자들은 초보 백패커의 행동에 대해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다. 공감이라는 긍정적인 정서와 불편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다.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양가적인 감정(박정열, 손영미, 2015)이 초보 백패킹 참여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서경험은 여가활동 참여자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갈등 요소분석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부심

1) 최적화된 패키징

처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고 걱정 때문에 이것저것 다 챙겨오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에 얼마나 최적화된 짐을 패키징할 수 있는지가 큰 차이가 되죠. (D)

얼마나 자기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지! 깊어지고 온 짐들을 100% 다 활용하는 사람이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죠. (D)

필요이상의 물건을 챙기지 않는 것이 전문 백패커의 기술입니다. (C)

백패킹은 장비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기술보다 장비의 채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기술이라고 언급한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백패킹에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보다 필요한 장비로 어떻게 짐을 싸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기술적인지에 대해 말했다. 더욱이 최근 백패킹은 BPL(BackPacking Light: 이

하 BPL)을 추구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서 미니멀하게 다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다.

2) 기초체력

일단 백팩을 짊어지고 등산을 해야 하기에 기초체력이 필요하죠. (D)

접근성이 좋은 곳은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산으로 가죠. 올라올테면 올라와봐라!!!라고 하면서 요... 어차피 못오니까, 거기까지는... (G)

멋진 뷰를 보기 위해 산행할 때는 내 체력과 의 싸움이 있죠. 그렇게 올라가야 사람도 적고 진짜 백패킹을 할 수 있어요. (A)

연구참여자들은 백패커에게는 체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백패킹은 무거운 짐들을 등에 메고 이동하는데 장시간 등산할 때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력이 필요하다. 특히 진지한 백패커들은 사람이 거의 없는 전망 좋은 장소를 찾아 캠핑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더 많은 체력이 소모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백패킹을 등산부터 캠핑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백패킹의 전 과정에 대해 자부심이라는 긍정적 정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안전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죠. 겨울에 경험 차이가 많이 나요. (C)

갑자기 눈이나 비가 올 때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백패킹 기술에 차이가 있죠. (E)

끈을 묶는 매듭법 같은 것이 있고, 부상당했을 때 응급처치법과 조난당했을 때 대처법,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구하는 방법, 불을 아 무데서나 피워서는 안 되지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불을 피우는 요령,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행동 요령, 벌집을 건드렸을 때 또는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 등 생존기술이 필요하죠. (F)

소나기 혹은 폭설과 같은 특별 돌발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가 초보 백패커와 전문백패커의 차이가 될 수 있어요. (D)

이렇듯 진지한 백패커들은 하드스킬 중 날씨와 건강에 대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환경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는 것은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패킹은 자연 환경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백패커에게 필요한 하드스킬로 최적화된 패킹, 기초체력, 안전을 말했고 자신이 갖춘 스킬에 대한 자부심을 진술했다. 아웃도어 리더십의 일반적인 분류 중 하드스킬에는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특정작업에 필요한 기술, 안전 기술, 환경적 기술 등이 포함된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된 패킹과 기초체력, 안전 기술이 도출되었다.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들의 하드스킬에 대한 자부심은 백패킹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들과 숙련도를 의미하며, 초보 백패커들에게는 없는 차별점을 의미한다.

3. 배려심

1) LNT(Leave No Trace)운동

자연을 배려하고 후에 그 장소를 이용하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함이죠. (G)

LNT같은 클린 백패킹을 하죠. 최종목적지 이동할 때는 당연한 것이고, 주위 타인이 버린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지나가죠. SNS에나 지인들과 소통할 때 클린백패킹을 권장합니다. (C)

LNT라고 등산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하고 등산객이 올라 오기 전에 철수하는 매너가 필요하죠. (D)

LNT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산을 올라가게 되면 산에 좋은 경치가 있는 데 크나 장소를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장소는 공간이 한정적이고.. 인원이 몰리게 되면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 양보를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등산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일찍 선점하고 불편을 끼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더 같이 공생하면서 깨끗하게 아끼면서 오래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H)

연구참여자들은 LNT운동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우선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를 넘어 장소를 함께 사용하는데 있어 다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들이 갖춘 자연과 사람에 대한 배려심은 긍정적인 정서경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LNT운동의 실천이 진지한 백패커와 그렇지 않은 백패커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지역사회를 위한 소비

해당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그 지역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고 장을 보는 편이에요.(G)

그 지역 특산물을 사먹으면 그 지역을 온전하게 맛보고 즐기고 올 수 있어서 좋아요. (F)

백패킹을 함께하는 인원들을 고려해서 그 계절 볼거리,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가죠. (B)

백패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들이 캠핑하는 장소는 화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화식의 조리된 음식을 준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먹거리를 준비하는 소비과정도 백패킹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코즈마케팅(cause marketing)과 착한 소비가 보편화되면서(신은희, 최경희, 2015) 여가활동 장소의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참여자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백패킹을 통해 배려심을 경험하고 있었다. 잘 알려진 LNT운동은 쓰레기 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과 함께 다른 방문객에 대한 배려도 포함된다. 그리고 백패킹 장소로 특정 지역에 1박 이상 머무르게 되므로 그 지역 사회를 고려한 소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IV. 논의

본 연구는 COVID-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여가활동 참여자인 백패커를 대상으로 COVID-19 상황에서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가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백패킹 참여자 간 이해와 경험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분석결과,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들은 ‘공감과 불편감의 공존’, ‘자부심’, ‘배려심’ 등의 정서경험을 통해 초보 백패킹 참여자들과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COVID-19상황에서 진지한 백패커들은 공감과 불편감의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연 환경 선호, 미디어 영향, 사회문화 전반에 퍼져있는 힐링 문화 등이 있다. 우선 COVID-19로 많은 사람들이 여가활동 장소로 실내가 아닌 실외 또는 자연 환경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백패킹의 인기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김하

안, 이동환, 김동환(2016)의 연구에서는 캠핑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요인 중 SNS 및 여행 관련 TV프로그램을 지적하였다. 또한 Ellison, Steinfeld과 Lampe(2007)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SNS 이용자들은 온라인 여가로서 자기표현을 넘어 실제로 본인 여가를 자랑하고 싶거나 과시하고 싶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미디어에 캠핑이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가문화에 있어서 편안한 휴식을 추구하는 힐링 트렌드에 부합되기 때문이다(김준순, 2016).

이렇게 COVID-19 상황에서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필요해지고, 힐링 트렌드와 캠핑 콘텐츠가 SNS와 TV를 통해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이에 대한 환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공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백패킹은 편의시설이 없는 등 현실적인 불편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매력이다. 따라서 자연과 어울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백패킹은 자신과 장소에 집중할 수 있는 본래의 매력과 COVID-19이후 시작한 초보 백패커와 차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백패킹 즐거기가 중요한 경험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캠핑의 참여 동기와 선택속성에서 체험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임영삼, 이상덕, 2015).

둘째, COVID-19상황에서 진지한 백패커들은 자신이 갖추고 있는 하드스킬에 대한 자부심으로 최적화된 패킹, 기초체력, 안전 기술을 강조하고 있었다. 아웃도어 리더십의 일반적인 분류 중 하드스킬에는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특정 작업에 필요한 기술, 안전 기술, 환경적 기술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백패킹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들과 숙련도인 하드스킬은 COVID-19로 백패킹을 시작한 초보 백패커들에게는 없는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백패킹은 BPL을 추구하는데,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서 미니멀하게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패킹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이다. 또한 백패킹은 무거운 짐들을 등에 메고 이동하는데 2-3시간 정도 등산할 때도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과 날씨가 나 건강이상 등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백패킹을 전문적으로 즐기는 이른바 마니아 활동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전문적 기술과 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진지한 여가로 해석할 수 있다(손수곤, 김인형, 2015). 진지한 여가 활동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술을 지니게 되며, 관련된 서적이나 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값비싼 장비를 구입하는 경향을 띄며 여가 전문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황선환, 이문진, 2009).

또한 전정아(2020)에 의하면 백패킹 마니아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캠핑 본연의 의미를 찾기 위해 혼자 떠나는 캠핑을 즐기며, 장소나 사람에 구애 받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 최소한의 짐으로 부피를 줄이고 더 가벼운 장비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황선환, 김도운, 이문진(2013)의 연구에서도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특별한 환경과 위험을 수반한 여가활동의 경우 다양한 규칙과 장비사용 등의 규범이 존재하며, 이는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COVID-19이후 백패킹이 트렌드적인 여가활동으로 떠오르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백패커들은 야생에서 독립적으로 장시간 체류해야 하고 많은 체력이 소모되며, 전문적인 장비사용과 안전을 위한 판단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된 안전교육 및 장비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COVID-19 상황에서 진지한 백패커의 매너는 LNT운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소비를 통해 배려심이라는 긍정적 정서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NT운동의 실천이 진지한 백패커와 그렇지 않은 백패커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환경 개선과 방해요인들을 측정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윤지인, 원형중, 김지혜, 2018). Hammitt와 McDonald(1983)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화 수준의 숙련된 기술 수준을 갖춘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참여자들은 자신의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행동적 대처행동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윤지인과 전진희(2014)의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혼잡, 다른 이용객들의 소음, 쓰레기 등을 목록화하면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환경 내에서 스트레스로 유발될 수 있는 여가방해요인들을 밝혀낸 바 있다. Salz와 Loomis(2005)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전문화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해진 규칙과 규범준수의식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김형룡, 박순문, 장은정(2004)의 연구에서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어진 환경의 보호의식이나 규칙 등을 잘 지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백패커의 매너 중 하나로 방문한 지역을 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가활동에 대한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즐겨가는 여가활동 장소에 대한 애착을 보인다는 Hammitt, Backlund와 Bixler(200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상황은 여가환경을 변화시키며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증가시켰다.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의 참여 수요 증가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슈와 여가

산업 측면에서 중요하다 판단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은 전에 없던 여가제약으로 진지한 여가참여자들의 여가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 중 진지한 백패커들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자연에서 자발적인 격리(isolation)를 즐기던 마니아적 진지한 백패커들은 갑자기 높아진 인기와 늘어난 초보 백패킹 참여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경험요인들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백패킹의 환상과 현실적 매력을 알고, 필요한 하드스킬과 매너를 익히는 것은 향후 백패킹에 대한 만족감, 재방문, 지속적인 참여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패킹 참여자의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경험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가 어떤 정서경험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지한 백패커들은 초보 백패커들에게 공감과 불편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백패커의 하드스킬에 대한 자부심으로는 최적화된 패킹, 기초체력, 안전 기술이 도출되었다. 셋째, 진지한 백패커는 LNT운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소비를 통한 배려심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정서경험들의 결과는 진지한 백패커와 초보 백패커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 과제 및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지한

백패킹 참여자들이 경험한 공감과 불편감의 양
가적 감정, 자부심과 배려심은 추후 참여자 간
갈등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갈등의 원활한 해결
을 위한 이용 만족도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중 아웃도어 리더십의
분류 중 하나인 특정 작업이나 안전, 환경에 필
요한 기술인 하드스킬이 도출되었다.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참여자들에게도 필요한 하드스킬
이외에, 대인관계 또는 지도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과 하드와 소프트 기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
는데 필요한 메타 스킬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
에서도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의 높은 수요가 유
지된다고 볼 때, 참여자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스킬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중 도출된 LNT운동은
쓰레기처리 등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레크리
에이션 갈등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특히 그룹 내인 백패커 간 레크리에
이션 갈등 또는 그룹 간인 백패커와 등산객 사
이의 레크리에이션 갈등에 관한 추후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여
가에서 레크리에이션 갈등의 이해와 해결은 지
속가능한 여가서비스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
편 착한소비를 추구하는 백패커들의 소비성향
이 도출된 만큼 관련 여가산업 마케팅과 여가교
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백패킹 매니아들
이 백패킹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정서경험을 토
대로 백패킹 매니아에 대한 여가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백패킹 시장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
하여 세분화된 백패킹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
록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고동우, 정소정(2015).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본 진
지한 여가활동과 가벼운 여가활동의 비교.
관광학연구, 39(10), 217-237.
- 권민정(2019). 지역사회 연계 참관실습을 통한 예비
체육교사의 반성과 교수 효능감 탐색. **한국
스포츠교육학회지**, 26(3), 89-110.
- 김경식, 한승백, 한승진, 이연주(2019). 미디어 빅데
이터를 통해 본 캠핑 트렌드 분석. **한국여가
레크리에이션학회지**, 43(2), 79-92.
- 김경주, 서광봉, 이철원(2015). 아웃도어 캠핑 참여
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 관한 근
거 이론적 분석. **여가학연구**, 13(1), 29-45.
- 김민규(2015). 진지한 여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및 여가중독의 관계. **여가학연구**, 13(1),
89-104.
- 김연정, 이천희, 이병찬(2015). 여가로서의 캠핑 참여
자의 활동유형, 캠핑장 선택속성, 이용만족
도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4(4), 155-167.
- 김은수, 한혜지, 황선환, 김태환(2021). 진지한 여가
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가만
족에 의해 조절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여가학연구**, 19(2), 67-84.
- 김종순(2016).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의 미디어 프
래임 분석: 캠핑을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
리에이션학회지**, 40(2), 58-72.
- 김진옥, 김남조(2013). 오토캠핑 참여자의 동기, 가
치, 만족도, 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대한관광경영학회지 28(5), 45-70.
- 김하얀, 이동환, 김동한(2016). 캠핑 참가자들의 만
족도 향상을 위한 캠핑 속성 개선 방안:
2015년 경기도 공적캠핑 참가자들을 대상
으로. **관광레저연구**, 28(1), 261-275.
- 김현정, 박근수(2018).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비판
적 재구성-캠핑 전문화의 방향성과 경로다
양성. **관광학연구**, 42(6), 101-126.
- 김형룡, 박순문, 장은정(2004). 친환경적 여가스포

- 츠활동과 환경의식 및 친환경적 소비행동의 관계.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4(1), 57-67.
- 김형종(2020).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신남방정책: 아세안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0(3), 21-54.
- 김형훈(2017). 캠핑참여자들의 여가축진과 진지한 여가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6(4), 511-521.
- 박정열, 손영미(2015). 일상재구성법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일상생활과 정서경험 분석. *여가학연구*, 13(2), 89-120.
- 변홍준, 김남조(2020). 캠핑 유형에 따른 코로나(COVID-19)대처 행동의도 연구-일반캠핑과 오토캠핑 차이분석.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88, 95-101.
- 서울관광재단(2021, 4. 5). 코로나19로 인한 여가관광 활동 제약으로 서울시민 대다수 코로나 블루 겪는다. *서울관광재단 보도자료*.
- 손수곤, 김인형(2015). 캠핑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경험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4(5), 167-178.
- 신은희, 최경희(2015). 글로벌 서베이: 착한소비의 국가 간 비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 8, 178-178.
- 윤지인, 원형중, 김지혜(2018). 캠핑 참여자의 여가 방해요인과 대처행동의 관계에 대한 행동적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조절효과 검증. *여가학연구*, 16(1), 55-75.
- 윤지인, 전진희(2014). 수상 스포츠 참여자의 활동 방해요소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행동 선택: 장소귀속감의 조절효과 검증. *여가학연구*, 11(3), 1-17.
-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파주: 한길사.
- 이철원(2014). 중년 남성의 여가 제약과 여가권태에 관한 질적 탐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2), 1-16.
- 임영삼, 이상덕(2015). 캠핑 참가동기와 선택속성, 참가지속과의 관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9(1), 83-93.
- 전정아(2020). 빅데이터를 통한 캠핑 트렌드 변화 연구. *한국관광사업학회지*, 45(3), 443-463.
- 정대영, 이수진(2020).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419, 1-25.
- 최성욱(2013). 캠핑을 위한 가변형 백팩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최연화, 정찬인, 이승곤(2014). 오토캠핑 참여동기 유형에 따른 행태분석. *대한관광경영학회지*, 29(1), 41-60.
- 홍일영(2013). 오토캠핑장의 공간분포와 공간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3(2), 65-74.
- 황선환, 김도운, 이문진(201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규범준수의식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4), 45-56.
- Bryan, H. (1977).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3), 174-187.
- Creswell, J. (201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4th)*. CA: SAGE Publications, Inc.; 정종진, 김영숙, 성용구, 성장환, 류성림, 박판우, 유승희, 임남숙, 임청환, 허재복 옮김. (2017). *연구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4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1168.
- Hammit, W. E., & McDonald, C. D. (1983). Past on-site experience and its relationship to managing river recreation resources. *Forest Science*, 29(2), 262-266.
- Hammit, W. E., & Backlund, E. A., & BiXler, R. D. (2004). Experience use history, place

- bonding and resource substitution of trout anglers during recreation engagem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3), 356-378.
- Jenkins, J., & Pigram, J. (2003). *Encyclopedia of leisure and outdoor recreation*. London: Routledge.
- Salz, R. J., & Loomis, D. K. (2005).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anglers attitudes towards restricted fishing areas. *Human Dimensions of Wildlife*, 10(3), 187-199.
- Stebbins, R. A. (1997). Serious leisure. In E. Jackson & T. Burton (Eds.),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p. 69-79). State College, PA: Ventur.